

순익 50% 꺾충... 박현주의 뚝심 ‘금융의 엔비디아’ 일궈다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1분기 순익 2582억
해외법인 세전이익 1196억 성과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수익 등
전부문서 ‘A+’ 영업 성적표 받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미래에셋증권을 ‘금융의 엔비디아’로 일궈 냈다. 국내보다 해외에 머무는 날이 더 많은 정도로 해외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는 박 회장의 노력 덕분에 1분기 미래에셋증권은 해외법인 실적과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자산관리(WM) 수수료 수익 등 전부문에서 ‘A+’라는 영업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8일 미래에셋증권은 연결기준 1분기 세전이익이 34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

국제경영학회 연례학회에서 아시아 금융인 최초로 올해의CEO에 선정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미래에셋증권



서울 종로구 미래에셋 본사.

/미래에셋증권



비 약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당기순 이익은 2582억원, 자기자본은 1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환산 자기자본 이익률(ROE)은 8.5%를 나타냈다.

해외법인 세전이익은 1196억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선진 시장 중심의 실적 성장과 함께 AI 및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기자본투자(PI) 포지션의 가치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각국 시장에 맞춘 WM과 트레이딩 전략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수익과 WM 수수료 수익은 각각 1012억원, 784억원으로 모두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통해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연금자산도 지속 성장했다. 1분기 말 기준 연금자산 잔고는 44조4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액은 약 1조3000억원으로 업권 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 42곳 가운데 약 23%의 점유율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의 최대 경쟁력은 원리금 비보장 상품(주식·펀드 등) 투자다. 다양한 투자 상품과 가입자 수익률 관리 서비스로 원리금 비보장형 투자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미래에셋증권의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자금이 쏠리는 원동력은 업계 최고의 수익률이다. 2024년 연간 수익률이 12.48%(원리금 비보장·IRP 기준)로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확정기여형(DC)형 수익률도 12.17%로 적립

규모 상위 5개 사업자 가운데 1위, 전체 사업자 중에는 2위였다.

트레이딩 부문은 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신중한 운용 전략이 주요한 성과 배경으로 분석된다.

기업금융(IB) 부문은 2018년 인수한 LX 판토스 지분 매각에 대한 실적이 반영됐으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는 LG CNS, 서울보증보험 등 총 8건을 주관하는 등 시장 내 지배력을 확대했다.

회사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연금·해외주식 부문 등 성장성이 높은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역량도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자산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총 1억 주 이상을 소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8월부터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을 진행 중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금리 인하기·고배당 매력 ‘리츠 ETF’ 뜬다 “위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정조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등
관련 ETF 한 달간 5%대 상승세
위축심리 개선 ‘대안 투자처’ 부각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 여파로 급락했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지수펀드(ETF)가 금리 인하 기대와 고배당 매력 부각 속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최근 한 달간 5.63% 상승했다. 이 ETF는 맥쿼리인프라, SK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롯데리츠 등을 주요 종목으로 담고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펀드다.

마찬가지로 맥쿼리인프라, SK리츠, ESR켄달스퀘어리츠 등을 주요 종목으로 담고 있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같은 기간 5.49% 상승했다. 이외에도 ‘PLUS K리츠’

(5.87%), ‘KIWOOM 리츠이지스액티브’ (5.36%) 등이 강세를 보였다.

리츠 ETF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달간 개인들은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를 223억원 순매수했으며,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를 48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유상증자 여파로 위축됐던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리츠 ETF가 대안 투자처로 재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리츠 ETF의 연간 분배율은 6~9% 수준으로, 금리 인하 국면에서 꾸준한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세 차례 이상 인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초 상반기 두 차례 인하 전망이 우세했으나, 경기 지표 부진과 추가경

정예산(추경) 집행 지연으로 하반기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리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초 밀라노 출장 중 “기준금리 인하를 의심하지 말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빅 컷(한 번에 0.5%포인트 인하) 여부나 인하 횟수는 5월 경제 전망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금리가 인하될 경우 리츠의 차입 비용이 줄어들어 기존 부채의 이자 부담이 경감되고, 신규 자산 매입 및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해진다. 이에 따라 리츠의 수익성 개선과 함께 추가적인 자산확장이나 리파이낸싱을 통한 성장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하나증권, 시각장애 학생들과 ‘봄나들이’

치즈·피자 만들기 체험형 사회공헌

하나증권이 시각장애 학생들과의 실질적인 교감을 이어가기 위한 체험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하나증권은 7일 인천치즈스쿨에서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랜드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하나자산운용 임직원도 동참해 하나금융그룹의 협업 사회공헌 형태로 진행됐다. 총 36명의 서울맹학교 학생들과 하나증권·자산운용 임직

원들은 1:1 멘토-멘티로 짝을 이뤄 치즈와 피자 만들기 체험을 함께했으며, 이후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며 친밀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나증권과 하나자산운용 임직원들은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점자 라벨이 부착된 텀블러를 선물하고, 노후 교육 기자재 교체를 위한 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강성욱 하나증권 대표이사는 “한 번의 봉사도 소중하지만,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우리투자증권 IRP 수익률 업계 1위

우리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공시된 올해 1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금비보장 수익률’에서 5.28%를 기록하며, 퇴직연금 판매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동일 부문에서 최근 5개 분기 중 4개 분기에서 증권사 최고 수익률을 달성했으며, 최근 8개 분기 연속 전환산 수익률 5% 이상을 유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러한 성과가 글로벌 성장자산 중심의 분산투자 전략과 저비용 운용구조를 활용한 장기 복리투자기 지원에 따른 것으로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코스닥 CEO 인터뷰

남 명 용 루미르 대표

“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되겠다.”

남명용 루미르대표는 인터뷰에서 기업의 정체성과 비전을 이렇게 요약했다. 인공위성 개발부터 데이터 서비스까지 수직계열화된 역량을 갖춘 국내 우주기술 전문기업 루미르는 현재 초소형 고해상도 SAR(Synthetic Aperture Radar) 위성 ‘LumirX-1’ 발사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위성 전장부품·시스템 등 기술확보 내년 초소형 위성 ‘LumirX-1’ 발사 이후 민간·공공 데이터서비스 개시 작년 매출 143억, 전년비 18% 증가

지난 2009년 설립된 루미르는 위성 전장품부터 시스템 통합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을 확보한 기업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차세대중형위성, 달탐사선 다누리호 등 다수의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기술 신뢰성과 시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며 본격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루미르의 핵심 사업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 우주 중심의 위성 제조 ▲SAR 영상 기반 데이터 서비스 ▲위성 기술을 응용한 민수 산업이다. 위성 제조 부문에서는 국가 우주개발 사업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했고, 2026년 첫 발사를 앞둔 LumirX-1을 통해 민간·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남 대표는 “현재 고품질 위성영상 수



요는 늘고 있지만, 미국·유럽 소수 기업의 공급 한계로 가격과 접근성이 제약돼 있다”며 “루미르는 고해상도 영상의 대중화와 데이터 기반 정보 서비스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미르는 민수 사업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위성 기술을 기반으로 선박용 연료제어 솔레노이드 밸브를 개발해 국내 최대 조선사에 독점 납품 중이며, 글로벌 엔진 제조사와의 협업을 통해 공급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기준 35억7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7.5% 성장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은 14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위성 사업 부문은 약 107억원으로 14.8% 성장했으며, 수익성 역시 대폭 개선됐다. 루미르는 자체 위성 발사 이후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고성장 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 인재 확보도 루미르가 중시하는 전략 중 하나다. 남 대표는 “카이스트(KAIST),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해 전문 인재를 양성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영철학 역시 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방점을 둔다. 남 대표는 “우리가 만드는 위성이 국민의 안전과 국방,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루미르는 대기업처럼 외형은 크지 않지만, 기술력과 구성원의 자부심만큼은 최고 수준을 지향한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